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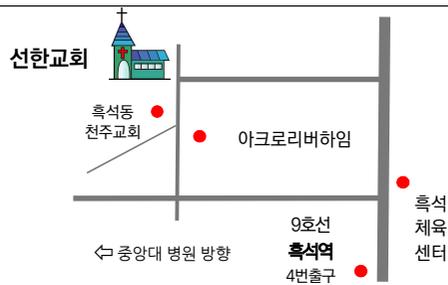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b>주 일 예 배</b>	1부 주일 오전 9:30	<b>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b>	
	2부 주일 오전 11:00		
<b>오 후 예 배</b>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b>중 국 어 예 배</b>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2:00
<b>수 요 예 배</b>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b>금 요 기 도 회</b>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b>새 벽 예 배</b>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b>셀 가족 모임</b>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b>사 역 자</b>	담임목사 임 춘 배	협력 선교사	강 성 규 (러시아)
	교육목사 권 인 혁	국 내 선교사	오 인 숙, 한 배 선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목사)
	협력전도사 오 호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목사)
<b>은 퇴 장 로</b>	김 대 희, 박 희 태		주안예교회 (이정필목사)
<b>장 로</b>	유 신 웅 (집사장)		가슴뛰는교회 (원종선목사)
	조 윤 익, 고 상 돈	<b>관 리 장 로</b>	손 석 규
	박 영 근, 조 계 승	<b>500/50 교회</b>	(1호) 필리핀 Good Church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 18:10)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실 천 사 항 지역봉사 전도 / 기도 선교사의 삶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1)



담임목사 임 춘 배

<b>오 전 예 배</b>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14장 (통일찬송가 30장)	
교 독 문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찬 양 과 경 배	520장 (통일찬송가 257장)	
예 배 기 도	조운익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사도행전 26장 19절 ~ 32절	
설 교	가이사라에서 2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오세영 안현미 전희영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선한 능력으로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b>주 일 오 후</b>	오후 3: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대 표 기 도	정진숙 집사		
말 씬	성경오류논쟁 4강 (창15:13, 출12:40) 애굽거주기간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b>수 요 예 배</b>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로마서 서론 (롬1:1-7)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다음주일(18일) 오후예배는 단기선교 보고예배로 드립니다.

8월 오후예배 일정		
날짜	제목	강사
8월 4일	전교인 수련회	다 함 께
8월 11일	성경오류논쟁 4강	임춘배 목사
8월 18일	성경오류논쟁 5강	임춘배 목사
8월 25일	성경오류논쟁 6강	임춘배 목사

2019년 성경강론 범위						
8/11	8/12	8/13	8/14	8/15	8/16	8/17
	전도서 9장	전도서 10장	전도서 11장	전도서 12장	아가 1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지치지 않는 새힘을 주시기를  
선교와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 [가정예배] 불편한 기독교

찬송 : '인애하신 구세주여' 279장(통 337장)

본문 : 누가복음 3장 7~17절

말씀 : 톰 라이트는 저서 '톰 라이트가 묻고 예수가 대답하다'에서 "예수는 여태 교회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불편하며 더 시급한 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기록한 오늘 본문은 라이트가 언급한 그 불편한 사실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침례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질책합니다.(7절) 그는 회개했다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지 않은 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하며 뒤로 숨어선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8절) 침례 요한은 이렇게 대중을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다 그 대가로 목이 잘렸습니다. 시시콜콜한 도덕적 행위를 놓고 간섭하는데 자신의 목을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의 조건인 회개했다는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회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우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로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형제에게 나눠 한 벌로 족해야 합니다. 음식이 있는 자는 굶주린 이웃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로마로부터 독점적 세금 징수권을 획득한 세리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징수하고 추가로 새 조항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군인 역시 권력의 힘을 믿고 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한 백성에게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6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성경의 두렵고 크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돌아온 사람. 자신의 이웃을 삶의 행위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의 마음에 왕이 오실 대로가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짐 월리스의 책 '하나님의 정치'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임의 한 학생이 가위를 들고 낡은 성경책 속 가난한 사람에 관한 말씀을 모조리 오려내는 대장정에 돌입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다... 지독한 편집 작업이 끝나자 낡은 성경책은 들기도 힘들 만큼 너털너털해졌다. 그야말로 걸레나 닦음없었다. 편집 작업의 최종 결과물은 구멍으로 가득한 성경책이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이 상처투성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이 성경책을 높이 쳐들고 미국의 청중에게 말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멍이 가득한 이 책이 우리 미국의 성경책입니다.'"

침례 요한의 권면에 의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가난한 교회를 지원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교회나 성도가 아닙니다. 가난한 교회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이웃을 돕겠다고 말하는 이의 궁극적 관심은 '부'이지 '이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교회나 성도는 부에 소유된 것이지, 부를 소유한 게 아니라는 그의 지적 앞에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 은혜의 말씀

제목

가이사랴에서 2 (행 26:19-32)

서론

바울은 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본론

### 1. 계속되는 재판

- (1) 후임으로 온 베스도가 부임한지 삼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기를 간청함
- (2)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재판 자리를 마련했고 바울에 대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함
- (3) 베스도는 아그립바 왕이 찾아오자 그에게 바울의 문제를 의논함
- (4) 아그립바왕은 바울을 불러 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줌
- (5) 바울은 아그립바왕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함

### 2. 교훈

- (1)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자.
- (2) 적은 기회가 주어져도 복음을 전하자.
- (3)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론

바울처럼 복음 증거에 전심전력하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조운익 장로	고상돈 장로
헌 금 위 원	오세영 안현미 전희영	오세영 안현미 전희영
오후예배 기도	정진숙 집사	허정미 집사

찬양	주 믿는 형제들 (찬송가 221장 / 통일 찬송가 525장)
통독	전도서 9장
본문 내용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밝히는 본서의 서론인 본장은 인생과 만물의 허무함에 대해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저자의 고백은 결코 염세주의의 소산이 아니라 인생의 허무함을 통해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인생들로 하여금 그에게 의지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먼저 저자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한다.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며, 인생은 허무하고 순간일 뿐이다(1-3절). 뿐만 아니라 자연들도 무상하며 해아래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4-11절). 더 나아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던 저자는 인간의 지혜조차도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12-18절). 그러나 여기서 저자가 허무하다고 고백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적 충족감을 위해 얻고자한 지식이었다.
생각해보기	
1	<p>죽음앞에서의 허무</p> <p>(1) 1-10절: 의인과 악인, 선인과 죄인의 결국은 똑같다. 그래도 산자에게 소망이 있음은 자신이 죽을줄 알기 때문이다. 해아래서 사는 동안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자신이 수고하고 얻은 몫이다. 스올에는 일도 계획도 없으니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한다.</p> <p>(2) 11-18절: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 사람이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 홀연히 임하는 재앙의 날에 걸린다.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건져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는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p> <p>(3)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인간의 연약한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혜를 의지하며 살자.</p>
핵심 단어	<p>6절. 이리 돌며. '뒤돌아보다, 향하다, 에워싸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바람이 일정한 방향 없이 부는 것임을 강조하여,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방향과 목적을 영원히 알 수 없이 다만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p> <p>9절. 한 일을. '형성하다, 성취하다'는 뜻으로 인간이 이루어 놓은 창조물들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된다.</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과 기도	완전하신 나의 주 /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통 427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연세가 90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연로한 탓에 귀가 들리지 않고 눈도 희미해서 목사님의 설교나 찬송을 잘 듣지 못하면서도, 토요일에는 머리를 감고 옷을 다려 놓고서 주일을 기다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만큼은 잘 알고 있었고, 교우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도 따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만은 같이했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할머니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어느 누구 못지않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주일이면 멋진 옷을 입고, 비싼 보석 반지와 목걸이를 하고 품위 있는 자세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액수의 돈을 헌금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만족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에 빠져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높은 하나님 뜻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 나누기	레위기 1:1~17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속죄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형편에 맞게 번제를 드리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상황을 모두 아시며, 예물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정성을 다해 정직하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께 예물(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2절) 번제물 위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는 사람은 누구인가요?(4~6, 11~12절)
적용하기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매일, 매주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저의 정직한 마음과 최선의 정성이 있게 하소서. 그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얽매임과 눌림 없이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나의 길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 통일 찬송가 434장)
통독	아가 1장

**본문 내용**

본서는 솔로몬 왕과 솔람미라는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인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밝혀 주고 있다. 이러한 본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신부가 된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교회)에게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다. 사랑에 빠진 두 연인들의 마음이 사랑의 언어로 표현된 본장은, 솔로몬 왕과 첫 사랑에 빠진 솔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과 님을 찾는 모습이 기술된 전반부(1-7절)와 솔람미 여인에 대한 예루살렘 여인들의 칭찬과 솔람미 여인의 고백에 반응하여 솔로몬 왕의 사랑이 나타나는 중반부(8-11절), 솔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서로 상대방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후반부(12-17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본장은 솔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사랑의 고백이 묘사되어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시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생각해보기**

- 1
- 두 여인의 노래
- (1) 아가서는 솔로몬왕과 솔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읊은 노래지만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사이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거룩한 사랑을 의미함
- (2) 1-8절: 여인은 포도주보다 더 진하며 향기롭고 아름다운 남자의 사랑을 간절히 원한다. 그녀는 비록 햇볕에 쬐어서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 여인은 남자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원한다. 남자는 그녀에게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말한다.
- (3) 9-17절: 남자는 여인을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고, 여인은 남자를 고벨화에 비유한다. 남자는 그녀가 어여쁘다며, 자신들의 집이 백향목 들보 같다고 한다. 또 그녀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한다. 이에 여인은 남자가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아 자신이 그 그늘에서 기뻐한다고 노래한다.
- (4) 배우자는 서로 화답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교제를 통해 화답해야 한다. 그럴 때 하루하루가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게 된다.

**핵심 단어**

5절. 검은. 선천적으로 피부가 검은 여자로 보기보다는 햇볕에 그을려 암갈색으로 거무스름하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

6절. 흘겨 보지. 무엇인가를 유심히 보면서 조사하듯이 노려보거나 깔보는 것을 뜻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주 우리 하나님 (찬송가 14장 / 통일 찬송가 30장)
통독	전도서 10장

**본문 내용**

본장에서는 지혜로운 인생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전도자는 여기서 지혜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기 위하여 막연하지만 서로 연결된 일련의 잠언들을 나열하고 있다. 사실 지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지혜는 고작해야 매우 제한된 도움을 줄 뿐이며, 때때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지혜일 때 그러한 것이기에, 본장에서는 우매함과 비교하여 참 지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며 지혜롭게 생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전도자는 지금까지는 인생의 모습을 세세하게 묘사한 가운데 그 허무를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짧은 잠언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우매한 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그 폐단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지혜로운 삶의 귀중성과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우매한 자들의 행동과 폐단의 실례들을 언급한 전반부(1-7절), 우매한 자들이 당하게 되는 피해를 나타낸 중반부(8-15절), 한 나라 통치자들의 우매함의 폐해를 묘사한 후반부(16-20절)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보기**

- 1
-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
- (1) 1-11절: 우매는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한다. 주권자가 분을 낼 때 공손하면 큰 허물도 용서받는다.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은 재난이다. 함정을 파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무더진 날을 갈지 않은 자는 힘이 더 든다. 오직 지혜만이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 (2) 12-20절: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우도 우매자의 입술은 자신을 삼킨다. 우매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왕이 어리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는 화가 있다. 게을러 손을 놓으면 집이 샌다. 심중에라도 왕과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 (3) 영원하지 않는 세상 나라에 속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지혜자가 되자.

**핵심 단어**

8절. 담. 벽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여기서 벽을 허는 행위는 타인의 영역을 위협하거나 침략하는 행위를 상징한다.

11절. 방술. 주술적 행위나 점술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피리를 불거나 특별한 사술을 행하여 뱀을 길들이는 기술을 말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주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가 219장 / 통일 찬송가 279장)
통독	전도서 11장
본문 내용	본장은 전도자가 지금까지 논해 온 인생에 대한 견해를 총괄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허무한 인생 속에서도 다가올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세로운 모험과 가능성을 향해 도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본장에서 전도자는 거듭 반복해서 인간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인생의 길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다만 매일의 생활을 마음껏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별히 본장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 전도자는 자신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무역업의 풍습, 자연의 현상, 농사법의 원리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구제와 근면(1-6절), 현재의 중요성(7-8절), 청년에 대한 권면(9-10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장을 통하여 자신의 안일만 추구하는 삶보다, 남을 위하여 구제와 봉사의 삶을 권고하는 삶이 한 단계 진전된 삶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생각해보기	
1	<p>주님이 원하시는 값진 인생</p> <p>(1) 1-11절: 떡을 물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 도로 찾을 것이다. 아침 저녁 씨를 뿌리고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 어는 것이 잘될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항상 즐거워하되 캄캄한 날이 많음을 생각해야 한다. 청년은 원하는 것을 행하되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아야 한다.</p> <p>(2) 예측할수 없는 미래를 위한 최고의 대비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는 결코 방종해서는 안된다.</p>
핵심 단어	<p>3절. 쓰러지면.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의 쓰러짐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우매한 자가 자신의 우매함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재난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할 것을 나타낸다.</p> <p>4절. 풍세. '바람, 호흡'이란 뜻으로 생물에 대해 사용될 때에는 호흡을 뜻하고 자연계에 대해서는 바람을 뜻한다.</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 272장 / 통일 찬송가 330장)
통독	전도서 12장
본문 내용	본장은 본서의 결론 부분이며 동시에 솔로몬의 인생관이 단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방식이 함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서는 세상 질서의 실재에 대하여 보다 낙관적인 시각으로 서술하는 잠언과는 달리 현실의 질서에 신비적인 혼란이 내재한다고 본다. 즉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이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불가해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서의 저자인 전도자는 회의주의나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배후에 존재하시면서 만물의 시기를 예정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일 면 염세적인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심은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전반부(1-8절), 전도자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중반부(9-11절),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밝히는 후반부(12-14절)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보기	
1	<p>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p> <p>(1) 1-8절: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 어둡기 전에 기억해야 할 창조주, 죽기전에 기억해야 할 창조주</p> <p>(2) 9-14절: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피곤하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선악 간에 심판하실 것이다.</p> <p>(3)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때가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우며 빛나는 때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서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다.</p>
핵심 단어	<p>6절. 바퀴.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기 위해 두레박에 연결된 도르레 역할을 하는 바퀴를 가리킨다.</p> <p>7절. 주신. 원어는 '주다'라는 뜻으로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 아닌 위임하거나 잠시 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p> <p>9절. 지혜로움. 고상한 도덕성과 함께 삶의 경험들에 관한 사고 방식과 태도 면에서 타인에게 귀감이 됨을 나타낸다.</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